

애착이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과 친구지지의 매개 역할

The Pathways from Attachment to Children's Psychological Well-being :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Ego-resilience and Peer Support

안지영(Jee-Young Ahn)¹⁾

오미경(Mi-Kyoung Oh)²⁾

김지신(Ji-Shin Kim)³⁾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athways from attachment to children's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dition to the mediating role of children's ego-resilience and peer support. The participants, 297 fifth and sixth grade students from Seoul and other cities, completed questionnaires on attachment, ego-resilience, peer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Data were analyzed by mean, standard deviation,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factor analysis, and path analysi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Attachment didn't appear to directly influence children's psychological well-being, but showed a number of indirect effects in two ways. First, attachment indirectly affected children's psychological well-being by ego-resilience as a simple form of mediation. Second, attachment influenced children's psychological well-being through children's ego-resilience and peer support as a dual mediation. Ego-resilience demonstrated the strongest effe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all the factors examined. These results highlight the way in which children's personal internal resource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pathways from attachment to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Key Words : 애착(attachment),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자아탄력성(ego-resilience), 친구지지(peer support), 매개 역할(mediating effect).

¹⁾ 이화여자대학교 인간생활환경연구소 연구원

²⁾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조교수

³⁾ 김지신아동청소년상담센터 소장

Corresponding Author : Jee-Young Ahn, Human Ecology and Environmental Institute,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un-dong,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E-mail : etoir@naver.com

I. 서 론

건강한 삶을 위한 욕구와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행복 또는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성인 뿐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의 행복감이나 만족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몇몇 연구들은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이 행복하며 안녕감을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통계청(2006)보고에 의하면 아동의 생활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35.9%로 낮은 수준이며, 초·중·고등학생 행복감의 실태(조성연·신혜영·최미숙·최혜영, 2009)는 전반적인 행복감 수준에 비해 과외활동과 여가활동의 행복감은 낮고, 학년이 높아지면서 학업부담의 증가로 인해 행복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경우도 학년 증가에 따라 안녕감의 정도가 낮아지며(김정민·이유리, 2010), ‘한국 청소년의 행복지수조사’에 의하면 다른 영역에 비해 특히 학업과 자신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 청소년의 전반적인 행복감은 저조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의 행복지수를 국제적으로 비교한 연구에서도(박종인·박찬웅·서효정·염유식, 2010)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의 행복지수는 학업성취와 같은 ‘교육’ 영역에서는 최상위이지만, ‘주관적 행복’ 영역은 최하위이며, OECD회원 23개 국가 중 3년 연속 최하위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복을 구성하는 다른 객관적 지표는 높은 수준인데 비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주관적 행복감이 매우 낮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는 학업에 대한 부담, 또래관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아동 및 청

소년의 건강한 삶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건강한 적응을 돕고 안녕감을 높이기 위한 많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아동의 안녕감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이후 발달에 있어서 긍정적인 기반을 제공하며 성장 후 행복감을 예언할 수 있으므로(Park, 2004; Yang, 2008) 아동의 안녕감에 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한 과제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에서 안녕감은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보람, 2011), 행복감(well-being)(김연화, 2010; 조성연 외 2009),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유슬기, 2010; Benzur, 2003; Park, 2004) 또는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김현옥, 2010; Corsano, Majorano, & Champretavy, 2006)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은 자신의 생활에 대한 주관적이고 전반적인 평가로(박종인 외, 2010; Diener, Diener, & Diener, 1995),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긍정적,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 Ryff(1989)는 인생의 목적, 자기실현 정도와 환경 조절력, 대인관계 만족도 등의 영역에서 개인이 잘 기능하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삶의 질을 이해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즉,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은 개인의 의미 있는 삶을 중시하여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긍정적으로 기능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삶의 질을 추구하는 노력이 전 생애에 걸쳐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Ryff & Keyes, 1995).

안녕감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에는 청소년 및 아동기에도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개인의 다양한 심리, 정서적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고려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Park, 2004). 이 가운데 아동

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변인 가운데 하나로 부모 관련 변인을 들 수 있다. 부모와의 관계, 양육태도 및 행동 등과 더불어 애착은 아동의 성격형성 및 발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며, 안녕감에도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애착은 아동이 가까운 양육자에 대해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관계로,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이후의 발달에서 개인의 적응과 심리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안정된 애착은 아동에게 안전 기지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탐색을 도우며,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된 내적작업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은 이후의 발달에서 대인관계의 원형으로 작용한다(Williams & Kelly, 2005).

애착은 아동의 안녕감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선행연구에서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신형자, 2010) 애착의 요인가운데 특히 신뢰감 및 의사소통은 아동의 행복감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박진화, 2008). 부모애착은 학업성취나 외모에 비해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주리, 2009)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에도 부모에 대한 안정된 애착은 안녕감의 형성에 기여하며(황아람, 2010),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안정될수록 중학생의 주관적 안녕감 영역 가운데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는 증가하고 부정적 정서는 감소하는 것(고영남, 2008)으로 보고되었다. 일 연구(김정문, 2008)에서 대학생 가운데 부모에 대한 신뢰가 높고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안정 애착의 경우는 심리적 안녕감을 높게 지각하여 안녕감에 대한 애착변인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안, 회피 애착의 경향을 보이는 청

소년의 경우는 안녕감 가운데 특히 부정적 정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박인숙, 2005), 이는 불안정 애착의 경우 타인과 가까워지기 원하나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로 표현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에서 친밀하고 유대감이 강한 경우 자녀의 안녕감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Ben-Zur, 2003; Corsano, Majorano, & Champretavy, 2006; Park, 2004), 부모의 양육에 대해 긍정적 또는 애정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지각하는 아동(이정미·이양희, 2007) 및 청소년(김경민, 2010)의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중, 고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김정민·이유리, 2010) 보고된다. 이상과 같이 애착은 아동이 성장하면서 건강한 대인 관계와 심리적 적응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아동의 안녕감에 기여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외부환경요인 외에도 역량지각, 자기조절력, 자아존중감 등과 같은 개인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자아탄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아탄력성은 다양한 상황적 요구에 대해 자아통제 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이며(Block & Kremen, 1996), 문제 해결을 위해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능력과 스트레스 등의 환경적 요구에 융통적으로 적응하는 행동(김지영, 2008; 김현옥, 2010)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자아탄력성이 있는 아동은 자신감이 있고 자율적이며 긍정적인 자아상과 정체성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어왔다(김현옥, 2010; Klohnen, 1996). 또한, 불안에 취약하지 않고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며 새로운 상황에서 융통성 있게 적응하며 충동

조절과 과제해결을 잘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Block & Kremen, 1996).

선행연구들에서 자아탄력성은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행복감 또는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경민, 2010; 김연화, 2010; 김지영, 2008; 김현옥, 2010). 또한,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으로 낙관성, 활력성, 원만한 대인관계와 타인에 대한 공감, 능숙한 자기표현기술 등이 제시되는데, 이 가운데 특히 낙관성은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며(김현옥, 2010), 낙관성과 함께 활력성(김연화, 2010), 공감요인(Klohn, 1996), 자율성(Ben-zur, 2003) 등은 아동 뿐 아니라 청소년의 행복감 및 안녕감과 적응을 잘 예언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아탄력성의 특성들이 안녕감의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동이 성장해 감에 따라 친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커지며 친밀한 친구관계가 안녕감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지지 가운데 특히 친구지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친구지지(peer support)란 도움이 필요할 때 적절한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또래에 대한 아동의 주관적이고 인지적 평가를 의미하는데(전혜리, 2007), 친구지지는 아동이 또래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즐거움, 친밀감,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발달 등 긍정적 자원 등이 포함된다.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와 안녕감 간의 관련성을 보고하는 선행연구 결과들(유슬기, 2010; 이정미·이양희, 2007; 채수옥, 2010; 홍승표, 2008)이 일관성 있게 제시되고 있어서, 또래로부터의 지지는 아동의 안녕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친구로부터 받는 친밀감, 애

정, 신뢰 등의 정서적 지지에 대한 지각은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기여하며(전혜리, 2007), 친구지지를 통해 아동은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정서적인 지지와 심리적인 안정을 얻는 것으로(채수옥, 2010) 보인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에게는 동성친구와의 관계(김현옥, 2010)가 심리적 안녕감에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 가운데 친구지지는 가족 및 교사지지에 비해 아동의 안녕감에 대해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박진화, 2009; 정혜영·이경화, 2008), 이는 아동의 안녕감에 있어서 친구지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친구관계는 청소년기로 갈수록 그 영향력이 커지는데, 또래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는 청소년의 경우에 안녕감이 높은 경향이며, 밝고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처하는 것으로(김현준, 2008; 박인숙, 2005; 유슬기, 2010; Csikszentmihalyi & Hunter, 2003) 보고되어왔다. 또한, 또래와의 결속력, 친밀한 친구로부터의 지지, 이성친구 등은 청소년의 사회적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며(Corsano, Majorano, & Champretavy, 2006; La Greca & Harrison, 2005), 성인의 경우에도 친구지지는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고 안녕감에 기여하는 역할(Ekas, Lickenbrock & Whitman, 2010)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상에서 친구지지는 아동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제공하여 건강한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삶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을 높여주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친구지지는 아동이 겪는 다양한 변화에 대처하는 유용한 자원으로써 아동기 적응과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애착과 자아탄력성 및 친구지지 변인은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선행변인일 뿐 아니라, 이들 변인들 간에도 상호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먼저 애착과 자아탄력성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애착 안정성이 높은 아동은 대체로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김아연, 2011; 신형자, 2010),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신뢰관계는 자아탄력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김수정, 2008) 것으로 보고된다.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의 경우에 또래에 비해 자아탄력성이 높으며, 불안과 적개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Kobak & Sceery, 1988), 이는 안정 애착의 경우 자신과 타인에게 긍정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아탄력성이 높고 대인관계가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애착은 아동의 자아탄력성 형성에 기여하여, 문제 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대인관계에서도 적절한 반응을 하도록 돕는 정서적 안전기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애착은 친구지지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예를 들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확장된 관계망을 형성하고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지각하며 사회적 유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이정미·이양희, 2007) 제시된다. 또한, 부모에 대한 애착을 안정적으로 지각하는 청소년은 또래와 정서적인 유대감을 가지며(고영남, 2008), 친구와 우정을 형성하는데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강승희, 2010) 나타났다. 한편, 회피, 불안애착의 경향을 보이는 청소년의 경우에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박인숙, 2005), 이는 불안정 애착의 경우에는 주위 사람으로부터 과도한 독립을 추구하거나 불신을 나타내어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애착은 자신에 대한 가치감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의 수용

성과 접근성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므로(Williams & Kelly, 2005), 애착과 친구지지는 상호 연관되고 아동 및 청소년의 안녕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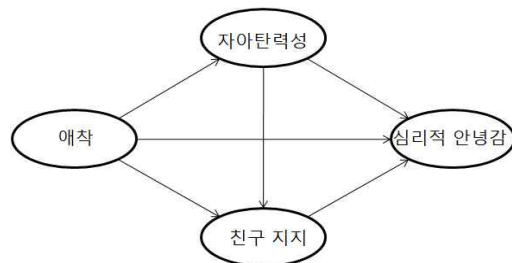
다음으로 자아탄력성과 친구지지 변인에 대해서는, 대체로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이 친구관계에서 긍정적으로 적응하며 친구로부터 지지를 잘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현옥, 2010; 신형자, 2011). 예를 들어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친구들로부터 인기아로 지목되고, 친구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가족이나 타인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성격적 특성과 연관이 있다(Garney, 1983)고 보여진다. 자아탄력적인 아동은 이웃, 동료, 선배들과 비형식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할 때 상담이나 조언 등의 지지를 구하는 특성을 보이며(김현옥, 2010), 자아탄력성의 요인가운데 낙관성이 높은 경우는 친구로부터 높은 수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Carver & Scheier, 2002; 유슬기, 2010 재인용) 알려진다. 이상에서 자아탄력성은 원만한 또래관계와 친구지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며,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친구지지에 대한 지각은 밀접하게 연관됨을 알 수 있다.

종합해보면, 이상의 연구를 통해 애착, 자아탄력성, 친구지지 변인은 각각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며, 또한 각 변인은 상호 관련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할 때, 애착은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친구지지를 통해서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즉, 애착이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친구지지에 대한 지각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서 다른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 애착과 자아탄력성, 친구지지는 모두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연구들은 일부 변인의 일차적인 관계성을 보고하는데 그치고 있어서 이들 변인을 모두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그 관련성을 살펴본 경우는 많지 않다. 또한, 비교적 최근에 수행된 몇 연구들은 애착이나 부모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본심리 욕구(황아람, 2010), 자동적 사고(김정문, 2008) 또는 자아탄력성(김경민, 2010), 자아정체감(서진숙·이동혁, 2010) 변인의 매개역할에 대해 다루고 있으나, 본 연구의 변인인 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이나 친구지지의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어서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급격한 성장 시기에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지각하는 심리적 안녕감과 애착, 자아탄력성 및 친구지지 변인들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봄, 경로분석을 통해 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자아탄력성과 친구지지가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이상의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 애착, 자아탄력성, 친구지지가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연구문제 1> 애착은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애착은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친구지지를 매개로 심리적 안녕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지방 도시의 7개 초등학교 11개 학급에서 표집한 5, 6학년 아동 36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분석에 부적절한 설문지를 제외한 후 297명(남아 152명, 여아 143명, 결측 2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시기의 아동들이 아동기 후반에서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발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친구 관계의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 있으며, 자기보고에 의한 설문지를 실시하여 자료수집이 적절한 연령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애착, 자아탄력성, 친구지지 및 심리적 안녕감 척도로 구성되며, 모든 문항은 아동에 의해 평가되었다.

1) 애착

본 연구에서 애착은 아동이 어머니에 대해 갖는 정서적 유대감과 신뢰, 의사소통을 의미하며,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측정은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애착척도(IPPA-

R)’를 박진화(2009)가 초등학생용으로 수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문항은 22개이며,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분석을 통해 신뢰도가 낮은 문항은 제외한 후 8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예를 들어 “어머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주신다.”, “어머니는 나를 이해해주신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을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안정적임을 의미한다. 각 문항들은 1점 ‘거의 그렇지 않다.’, 5점 ‘거의 그렇다.’를 나타내는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Chronbach’s a는 .90으로 신뢰로운 수준이었다.

2)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이 잠재력을 최고치로 추구하는 노력이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Ryff & Keyes, 1995), 본 연구에서는 김현옥(2010)이 사용한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PWBS :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를 기초로 김현옥(2010)이 초등학생에게 적합하도록 재구성한 14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하위요인은 긍정적 대인관계, 환경에 대한 통제력, 삶의 목적, 자아 수용성의 4개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긍정적 대인관계는 타인과의 원만한 대인관계 정도를 나타내는데 “나는 내 친구들을 믿을 수 있고 친구들도 나를 믿는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된다. 환경통제력은 주어진 환경을 선택하거나 창조하는 능력을 나타내며 문항의 예로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를 들 수 있다. 삶의 목적 요인은 삶에 대한 목적을 시행하고 계획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나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와 같은

문항이며, 자아수용은 자기 자신과 과거의 삶에 대한 수용을 의미하는 “나는 지금 나의 전반적인 모습에 만족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각 문항들은 1점 ‘거의 그렇지 않다.’, 5점 ‘거의 그렇다.’를 나타내는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hronbach’s a는 .86으로 신뢰로운 수준이었다.

3)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적 요구에 대해 자아통제수준을 변동시키는 역동적인 능력(Block & Block, 1980)과 환경적응을 위한 행동·정서·인지적 조절능력이며 개인의 내재된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현옥, 2010). 본 연구에서 아동의 자아탄력성 측정은 O’Connell-Higgins(1983)와 Block과 Kreman(1996)의 ‘자아탄력성 검사(Ego-Resiliency Scale : ER)’ 문항을 기초로 김현옥(2010)이 구성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친구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총 33 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하위요인 가운데 친구관계는 다른 사람의 긍정적 관심을 얻는 능력을 의미하며, “나는 친구의 말을 존중해준다.” 등의 7개 문항이 포함된다. 활력성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활동적이고 환기적인 접근을 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나는 새롭고 신기한 일에 흥미를 가진다.”와 같은 7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감정통제는 고통이나 괴로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경험을 구성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나는 기분이 나쁠 때에도 쉽게 떨쳐버릴 수 있다.” 등의 5개 문항이며, 호기심 영역은 새로운 것을 알고자 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나는 공부나 놀이를 할 때 나만의 독특한 방법을 생각해본다.” 등의

8개 문항이 포함된다. 낙관성은 6개 문항으로, 삶의 의미에서 긍정적인 신념을 유지하는 능력에 대한 내용으로 “나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잘 될 것이라 생각한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쉽게 포기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들은 1점 ‘거의 그렇지 않다.’, 5점 ‘거의 그렇다.’에 해당하는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Chronbach’s α 는 .93으로 신뢰로운 수준이었다.

4) 친구지지

친구지지는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 친밀함에 대한 아동의 주관적이고 인지적 평가를 의미한다. 아동이 지각한 친구지지 측정은 한미현(1996)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3개의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 친구지지 문항을 사용하였다.

친구지지는 8문항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들로 부터의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은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주는 것 같다.”,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친구들은 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같다.”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들은 1점 ‘거의 그렇지 않다.’, 5점 ‘거의 그렇다.’를 의미하는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Chronbach’s α 로 측정된 신뢰도는 .92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서울 및 지방 도시에 소재한 7개 초등학교에서 5, 6학년 총 11개 학급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담임교사를 통해 학급 아동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대상 아동이 작성한 후 회수하였다. 총 36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314부가 회수되었으며 미응답 등으로

인해 분석이 부적절한 설문지는 제외한 후 297부(남아 152명, 여아 143명, 결측 2명)가 분석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신뢰도는 Chronbah’s α 값으로 산출하였으며, 전체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전체 변인들 간의 구조 및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였다.

III. 결과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오차를 통제할 수 있고 매개변수의 사용이 용이하며, 이론모형에 대한 통계적 평가가 가능한 장점을 가진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연구문제를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에서의 정상분포조건(편포도 < 2, 첨도 < 4)을 고려할 때(Hong, Malik, & Lee, 2003),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편포도와 첨도는 구조방정식모형 적용에 필요한 정상분포조건을 충족시켰다.

1. 측정모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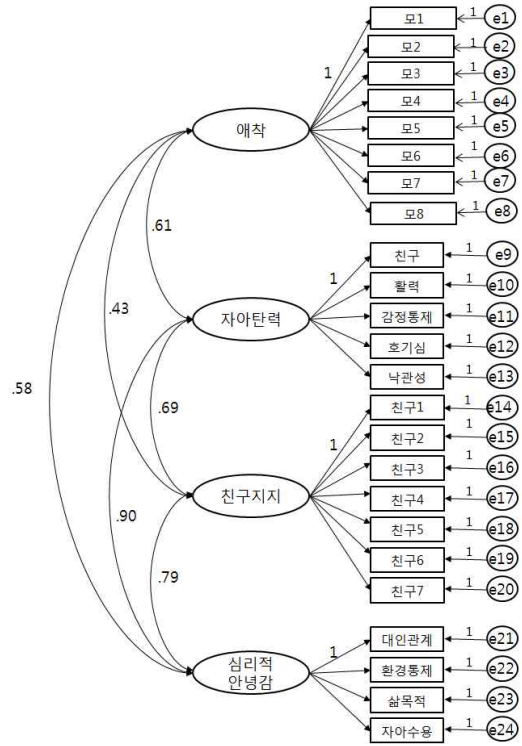
연구모형에 포함된 개념들이 적절하게 측정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위해(문영주·좌현숙, 2008),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수인 애착, 자아탄력성, 친구지지,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 개별적인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에 측정모형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 방법을 통하여 측정모형을 분석한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RMSEA = .067, TLI = .909, CFI = .925로 나타났다.

〈표 1〉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잠재변수	측정변수	B	β	SE	CR
애착	모1	1	.67***	-	-
	모2	1.19	.75***	.10	11.58
	모3	1.17	.67***	.11	10.47
	모4	.82	.55***	.09	8.78
	모5	1.32	.80***	.11	12.25
	모6	1.35	.87***	.10	13.07
	모7	1.47	.81***	.12	12.28
	모8	1.26	.69***	.12	10.68
자아탄력성	친구관계	1	.88***	-	-
	활력성	1.10	.88***	.053	20.82
	감정통제	.73	.64***	.059	12.37
	호기심	.82	.73***	.055	15.08
	낙관성	.98	.81***	.055	17.95
친구지지	친구1	1	.77***	-	-
	친구2	.94	.75***	.069	13.52
	친구3	1.09	.81***	.072	14.96
	친구4	.99	.75***	.072	13.67
	친구5	1.09	.82***	.071	15.22
	친구6	1.10	.83***	.072	15.31
	친구7	1.04	.77***	.074	14.05
심리적 안녕감	대인관계	1	.70***	-	-
	환경통제	.77	.41***	.117	6.52
	삶의 목적	.93	.59***	.100	9.25
	자아수용	1.18	.79***	.098	12.09

*** $p < .001$.

본 연구에서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며 적합도 평가지수의 기준이 확립된 RMSEA, TLI, CFI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Brown 과 Cudeck(1993)에 따르면 TLI와 CFI의 값이 .90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고, RMSEA는 그 값이 .05 이하면 좋은 적합도, .05에서 .08 사이면 적당한 적합도(김주환 · 김민규 · 홍세희, 2009 재인용)로 평가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본 측



〈그림 2〉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은 표 1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0.41~0.88로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애착, 자아탄력성, 친구지지 및 심리적 안녕감 네 개의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들은 모두 타당하게 구성되었음이 검증되었다.

측정모형의 집단별 동질성을 검토하고자 성별에 따라 다중집단 모형에 대해 비제약모형과 측정제약모형, 구조공분산 제약모형의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에서 비제약모형의 회귀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 후에도 모형의 적합도는 악화되지 않았으며, 또한 측정제약 뿐만 아니라 구조공분산이 동일하다는 구조공분산 제약모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도 비

제약모형은 제약 이후에도 모형의 적합도는 악화되지 않았다. 이는 측정모형의 자료가 서로 동질적인 것임을 의미하므로 이후 측정모형을 포함한 인과모형의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한 매개모형의 검증은 성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실시하였다.

2. 상관관계분석

경로분석에 앞서 전체 잠재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표 2), 애착과 자아탄력성 간의 상관관계는 .61, 애착과 친구지지 간에는 .43, 그리고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 간에는 .58의 $p < .001$ 수준에서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자아탄력성과 친구지지 간의 상관관계는 .69,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 간에는 .90, 그리고 친구지지와 심리적 안녕감 간에는 .79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애착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고, 친구지지에 대한 지각이 높으며 심리적 안녕감이 높

〈표 2〉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N = 297$)

잠재변수	1	2	3
1. 애착	-		
2. 자아탄력성	.61***	-	
3. 친구지지	.43***	.69***	-
4. 심리적 안녕감	.58***	.90***	.79***

*** $p < .001$.

〈표 3〉 애착, 자아탄력성 및 친구지지가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의 적합도

χ^2	df	P	RMSEA	TLI	CFI
555.226	243	.000	.066	.911	.928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친구지지는 높으며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지지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구조모형 분석 : 애착, 자아탄력성, 친구지지가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측정모형을 통해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애착과 자아탄력성, 친구지지가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RMSEA = .066, TLI = .911, CFI = .928 로 산출됨으로써,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분석 결과, 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beta = .03, p > .05$) 나타났으며, 간접적인 두 가지 경로로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간접경로를 살펴보면 첫째, 애착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beta = .62, p < .001$)을, 자아탄력성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 영향($\beta = .63, p < .001$)을 미침으로써, 애착은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단순 매개 효과를 통해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와의 애착의 안정성이 높은 아동은 자아탄력성이 높고, 그로 인해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 애착, 자아탄력성, 친구지지가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B	β	SE	CR	P
애착 → 자아탄력성	.386	.622	.039	9.924	.001***
애착 → 친구지지	.012	.015	.054	.221	.825
애착 → 심리적 안녕감	.020	.030	.038	.515	.606
자아탄력성 → 친구지지	.849	.670	.101	8.387	.001***
자아탄력성 → 심리적 안녕감	.662	.634	.091	7.273	.001***
친구지지 → 심리적 안녕감	.326	.395	.057	5.738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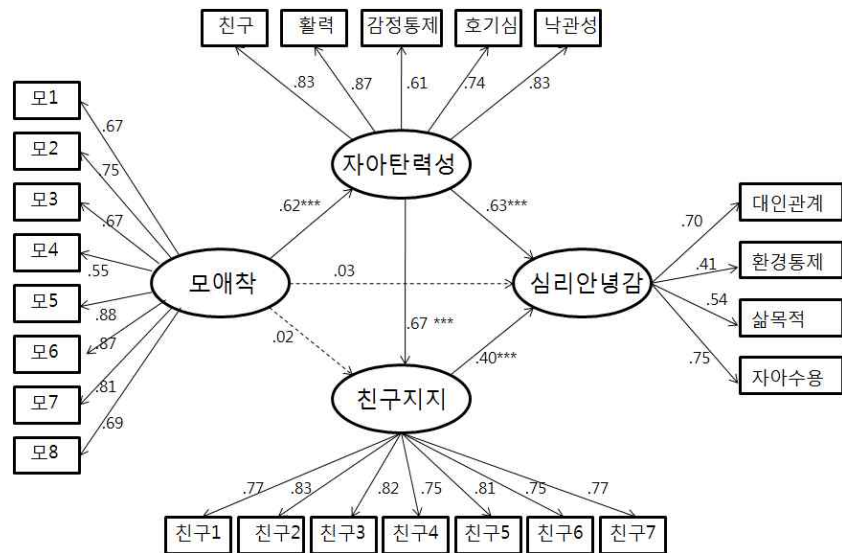
*** $p < .001$.

두 번째 경로는 애착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beta = .62, p < .001$)을, 자아탄력성은 친구지지에 정적 영향($\beta = .67, p < .001$)을, 다시 친구지지는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 영향($\beta = .40, p < .001$)을 미침으로써, 애착은 자아탄력성과 친구지지의 이중 매개 효과를 통해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와의 애착의 안정성이

높은 아동은 자아탄력성이 높고, 그로 인해 친구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성향이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심리적 안녕감을 높여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모형으로 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애착과 자아탄력성 및 친구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총효과



주)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 $p < .001$.

〈그림 3〉 애착, 자아탄력성, 친구지지가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표 5〉 각 변인들의 직·간접 효과 및 총효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애착	자아탄력성	.622	.000	.622
	친구지지	.015	.417	.432
	심리적 안녕감	.030	.565	.596
자아탄력성	친구지지	.670	.000	.670
	심리적 안녕감	.635	.265	.900
친구지지	심리적 안녕감	.395	.000	.395

를 살펴보면,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동의 자아탄력성이었다(표 5).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애착이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자아탄력성과 친구지지 변인의 매개 역할을 탐색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애착은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애착은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친구지지를 매개로 심리적 안녕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애착은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경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아탄력성과 친구지지 변인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적인 영향의 첫 번째 경로는 애착이 자아탄력성을 단순 매개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경로로 애착은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친구지지 두 변인을 이중 매개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은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경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애착은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자아탄력성 및 친구지지 변인이 매개하는 경로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애착과 안녕감 간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들(고영남, 2008; 박인숙, 2005; 박진화, 2008; 신형자, 2010)과 관련시켜 볼 때, 본 연구에서도 연구변인들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에서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위의 선행연구들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분석에서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선행변인으로서 자아탄력성과 친구지지를 동시에 고려할 때에는 안녕감에 대한 애착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연구되는 변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닌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향을 주는 경로와 구조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애착의 영향력은 간접적인 효과를 통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아동기

후기임을 고려하면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애착의 영향력은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자아탄력성과 친구지지 등 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영향을 주며, 아동의 안녕감에 대해 애착은 여전히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애착이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은 두 가지 경로로 나타났다. 첫 번째 경로로, 애착은 자아탄력성을 단순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안정적인 아동은 자아탄력성이 높고, 이러한 높은 자아탄력성을 통해 자신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애착이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역할이 나타난 결과는, 자아탄력성 같은 개인 심리적 변인의 매개를 통해 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간접적인 경로를 보고하는 몇몇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안정애착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 등의 기본심리욕구(황아람, 2010), 또는 자동적 사고(김정문, 2008)의 매개역할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을 어느 정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모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아탄력성(김경민, 2010)이나 자아정체감(서진숙·이동혁, 2010), 정서지능(김정민·이유리, 2010) 등 심리적 변인의 매개효과를 보고한 연구들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변인들 가운데 자아탄력성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탄력성의 낙관성과 공감, 활력성, 자율성 요인이 아동 및 청소년의 적응과 행복감을 예언하며 설명력이 높은 것

으로 보고한 연구들(김연화, 2010; 김현옥, 2010; Ben-Zur, 2006; Klohnen, 1996)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안녕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린 시기에 형성된 애착은 아동기에도 지속적으로 발달에 영향을 주어 자아탄력성을 높여주며, 이러한 자아탄력성은 낙관성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특성이 있으므로(Block & Kremen, 1996) 아동의 안녕감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양한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는 학령기 후기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개인 성격자원인 자아탄력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두 번째 간접경로는 애착이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친구지지 두 변인을 이중 매개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와의 안정된 애착은 일차적으로 자아탄력성을 높여주며, 자아탄력성은 이차적으로 친구지지를 높게 지각하는데 기여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애착이 안녕감에 미치는 이중 매개 경로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애착이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애착과 자아탄력성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들(김수정, 2008; 김아연, 2011; 신형자, 2010)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는 안정 애착의 경우 자신과 타인에게 긍정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아탄력성이 높고 불안과 적개심이 낮으며 대인관계가 좋은 특성(Kobak & Scarry, 1988)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안정된 애착은 성장과정에서 안전기지로 작용하여 자아탄력성 형성을 지원하는(Wyman, Cowen, Work, Hoyt-Meyers, Magnus, & Fagen, 1999)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어 자아탄력성이 친구지지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친구지지를 높게 지각한다는 연구들(김현옥, 2010; 신형자, 2010)을 지지하는 것이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친구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지를 구하며(김현옥, 2010), 집이나 학교에서 사회적 지지를 쉽게 얻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는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성격적 특성과 연관이 있다(Garmerzy, 1983)고 보고한다. 자아탄력성에는 자신감 및 자율성, 낙관성과 활력성, 대인관계의 통찰력과 따뜻함, 능숙한 대인관계와 자기 표현기술 등이 포함되는데(Block & Block, 1980; Klohnen, 1996), 이러한 자아탄력성은 대인관계에서의 자신감 및 능력과 관련되며 아동의 친구지지에 대한 지각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친구지지에 대한 지각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친구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지각수준이 높은 아동 및 청소년의 안녕감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들(김현옥, 2010; 박인숙, 2005; 박진화, 2009; 유슬기, 2010; 이정미 · 이양희, 2007; 정혜영 · 이경화, 2008; 채수옥, 2010; Corsano, Majorano, & Champretavy, 2006; La Greca & Harrison, 2005)을 지지하는 것이다. 특히, 학령기 후반에서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초등학교 고학년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빠른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므로, 부모이외에 친구관계의 영향력은 중요해지며, 그들의 행복감에 친구와 함께 하는 것이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Csikszentmihalyi & Hunter, 2003) 친구지지는 아동이 겪는 다양한 변화에 대처하는 유용한 자원으로써 아동기 적응과 안녕감에 대해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친구지지 등의 개인 내적특성이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관계 변인과 청소년의 안녕감 간에 청소년 개인 역량변인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주장(Cowen, 2000; 서진숙 · 이동혁, 2010제인용)을 지지하며, 앞으로의 연구에서 아동의 개인적 특성의 역할에 대해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연구모형과 달리 애착이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친구지지의 단순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 연구에서 애착과 친구지지(박인숙, 2005), 친구지지와 안녕감(박진화, 2009; 채수옥, 2010) 변인 각각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보고하고 있으나, 경로를 탐색한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라는 변인이 함께 고려되었을 때에는 친구지지의 영향이 감소되어 애착과 안녕감 간에 친구지지의 단순매개역할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애착은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경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아탄력성과 친구지지의 매개역할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와의 관계적 측면인 애착은 그 자체가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자아탄력성과 친구지지에 대한 지각 등 애착을 통해 증진된 아동의 개인 내적특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킨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행복감 향상에는 가까운 친구와의 사귀고 자유선택활동, 도전할 과제에의 몰입 등이 크게 기여한다는 Csikszentmihalyi와 Hunter(2003)의 제안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이지만 행복한 아이들은 아닌”(김주환, 2011)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학업성취 위주의 우리 사회에서 경쟁이 아닌 따뜻하고 친밀한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자유로운 활동과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회와 환경(Park, 2004)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교육을 통해 발달이 가능한 특성이라는 주장(Wicks, 2005)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의 안녕감 향상을 위해 자아탄력성을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며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애착을 포함하여 자아탄력성, 친구지지와 심리적 안녕감 등 모든 연구 변인을 대상아동이 보고한 질문지를 통해 측정하였다. 아동 자신의 주관적인 응답을 통해서 자료가 수집되었기 때문에, 주관적인 지각에 의해 측정된 친구지지 지각변인은 실제 친구지지가 많은 경우와는 결과가 구별될 수 있으며, 특히 높은 자아탄력성은 친구지지에 대한 긍정적 지각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어머니나 교사 등 다양한 평가자에 의한 객관적인 측정을 포함하여 연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으로 학업성취와 같은 변인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사회의 실정을 반영하는 척도를 사용하여 아동의 안녕감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지금까지 선행 연구들이 주로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 애착, 자아탄력성과 친구지지 일부 변인의 관계성에 대해서 보고한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에 대한 경로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연구변인

들 간의 경로와 구조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아동의 개인내적 요인인 자아탄력성과 친구지지의 매개 효과가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 향상을 돕기 위해서는 자아탄력성을 강화하고 친구지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과 다각적인 개입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참 고 문 헌

- 강승희(2010). 중학생의 부모애착, 우울, 심리적 안녕감,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8(3), 1-29.
- 고영남(2008). 중학생의 부 애착, 모 애착, 또래 애착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열린교육연구**, 16(2), 111-131.
- 김경민(2010).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25, 40-74.
- 김수정(2008).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아연(2011). 아동의 사교육 경험, 자아탄력성 및 부모·또래애착과 일상적 스트레스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연화(2010). 아동청소년의 일상 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과 행복감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12), 287-307.
- 김정문(2008).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5(6), 197-224.
- 김정민·이유리(2010). 청소년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정서지능 및 부모화 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3), 13-26.
- 김주환(2011). **회복탄력성**. 고양: 위즈덤하우스.
- 김주환·김민규·홍세희(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지영(2008). 자아탄력성, 주관적 안녕감, 스트레스 지각수준 및 대처방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옥(2010).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이 역량지각 및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준(2008).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지각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주도적 대처를 매개효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영주 · 좌현숙(2008).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있어 정서적 조절 능력의 조절효과. **사회복지연구, 38가을호**, 353-379.
- 박인숙(2005). 청소년의 애착 경향성이 사회적 지지 요청 및 지지지각,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종인 · 박찬웅 · 서효정 · 염유식(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비교. **한국사회학, 44(2)**, 121-154.
- 박진화(2009). 초등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사회적 지지와 행복감과의 관계.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진숙 · 이동혁(2010). 양육 행동과 청소년의 안녕감을 매개하는 자아정체감. **상담학연구, 11(4)**, 1599-1622.
- 신형자(2010). 부모애착, 또래애착, 자아탄력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슬기(2010).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낙관성, 부모관련 스트레스, 또래지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보람(2011). 학령기 아동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건강상태에 따른 삶의 질.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미 · 이양희(2007).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간의 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회적 지지 및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20(4)**, 33-58.
- 이주리(2009). Data Mining을 이용한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 탐색. **아동학회지, 30(1)**, 11-25.
- 전혜리(2007). 아동의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과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혜영 · 이경화(2008).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자기조절력, 주관적 안녕의 인과적 구조분석. **아동학회지, 29(4)**, 167-179.
- 조성연 · 신혜영 · 최미숙 · 최혜영(2009). 한국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 실태조사. **아동학회지, 30(2)**, 129-144.
- 채수옥(2010). 초등생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과와의 관계. 충북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통계청(2006). **사회통계조사 보고서**. 서울: 통계청.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8). 2008 한국청소년행복지수조사연구.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승표(2008). 사회적 유능에 따른 아동 자아개념 및 주관적 안녕에 관한 연구. **아동교육, 17(2)**, 311-321.
- 황아람(2010).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en-Zur, H. (2003). Happy adolescent : The link between subjective well-being, internal resources, and parental fact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2*, 67-79.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 Conceptual and empirical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 (ed.).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3*, 39-101. Hillsdale, NJ : Erlbaum.

- Corsano, P., Majorano, M., & Champretavy, L. (2006).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 The contribu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 and experience of being alone. *Adolescence, 41*(162), 341-353.
- Csikszentmihalyi, M., & Hunter, J. (2003). Happiness in everyday life : The uses of experience sampl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4*, 185-199.
- Diener, E., Diener, M., & Diener, C. (1995). Factors predicting the subjective well-being of n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851-864.
- Ekas, N. V., Lickenbrock, D. M., & Whitman, T. L. (2010). Optimism, social support, and well-being in mothers of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40*, 1274-1284.
- Garnezy, N. (1983). Stressors of childhood. In N. Garnezy and M. Rutter(ed.).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New York : McGraw-Hill.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y Measurement, 63*, 636-654.
- Klohne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 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5), 1067-1079.
- Kobak, R.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La Greca, A., & Harrison, H. M. (2005). Adolescent peer relations, friendships, and romantic relationships : Do they predict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4*(1), 49-61.
- Park, N. (2004). The role of subjective well-being in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91*, 25-39.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Ryff, C. D., & Keyes, C.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4), 719-727.
- Wicks, C. R. (2005). Resilience : An integrative framework for measurement. Doctoral dissertation. Loma Linda University, California, U.S.A.
- Williams, S. K., & Kelly, F. D. (2005). Relationships among involvement, attachment, and behavioral problems in adolescence : Examining father's influ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5*(2), 168-196.
- Wyman, P. A., Cowen, E. L., Work, W. C., Hoyt-Meyers, L., Magnus, K. B., & Fagen, D. B. (1999). Caregiving and developmental factors differentiating young at-risk urban children showing resilient versus stress-affected outcomes : A replication and extension. *Child Development, 70*(3), 645-659.
- Yang, Y. (2008). Social inequalities in happiness in the U.S. 1972~2004 : An age-period-cohort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3*(2), 204-226.

2011년 8월 31일 투고, 2011년 11월 2일 수정
2011년 11월 9일 채택